

# “한국M&A그룹”

## 주요활동내역 소개

(= 언론보도내용을 중심으로 =)

### <한국M&A그룹>

- 한국M&A투자협회 ([www.mnai.kr](http://www.mnai.kr))
- 한국M&A거래소 ([www.KMX.kr](http://www.KMX.kr))
- 아시아M&A협회 ([www.asia-ma.net](http://www.asia-ma.net))

# 사단법인 한국 M&A투자협회 소개



[www.mnai.kr](http://www.mnai.kr)

1. 사단법인 한국M&A투자협회는 **지식경제부장관 허가법인**입니다.
2. **사법연수원 M&A분야 실무연수기관**입니다.
3. 변호사, 회계사, M&A전문가, 기업체임직원 등 **약3,5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있는 있는 공인조직**입니다.
4. 국제조직인 한국, 중국, 일본, 인도가 중심이 된 『**아시아M&A협회**』 **회장 조직**입니다.
5. **중국공상업연합회M&A공회(회장 왕위 [www.ma-china.com](http://www.ma-china.com))** **국내 유일 파트너**입니다.  
(중국정부와 연계된 중국 최대 M&A공조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직과 유사함)
6. **M&A전문기관**입니다.
  - ☞ M&A거래사[MAD] 교육 및 자격증 발급기관입니다(중국과 자격증 공유 협약체결)
  - ☞ M&A컨설팅, 딜(Deal) 중개, Structure 구성 연구기관입니다.
  - ☞ 일반기업, 회생기업 M&A분야 전략적 전문 자문기관입니다.
  - ☞ M&A분야 학술, 세미나 등 연구 및 정책개발 기관입니다.
7. 기술보증기금, 서울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구로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 인도 SMEchamber(45,000개 기업조직), 중국광둥성 투자협회, 일본은행, 국내 대·중·소 회계법인, 대·중·소 법무법인 등과 제휴·협력기관이며 정보교류를 통한 **기업관련 전문분야 및 기업컨설팅 분야 네트워크 보유기관**입니다.
8. 차별화된 법정관리인 양성교육(조별, 주제별 레포트 발표 및 제출 등) 을 통해 최고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정관리인 (감사) 3대 교육기관**입니다.
9. 주식상장(IPO), M&A진행, 경영전략, 유가증권발행, 투자/파이낸싱 (자금조달), 기업회생컨설팅, 기업가치제고 및 사업비전제고 연구, 개발,자문기관입니다.
10. 한중펀드 결성 및 운용기관(예정)입니다.
11. 한국M&A거래소([www.KMX.kr](http://www.KMX.kr)) 네트워크 지원기관입니다.
12. **FM조찬포럼, BP석찬포럼 주최기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M&A 투자협회  
KOREA M&A Investment Association

# 아시아M&A협회 소개

[www.asia-ma.net](http://www.asia-ma.net)



## ▶ 설립근거

- 한중일 아시아M&A협회 설립 서약식 체결  
(2010. 11. 상해에서 500여명의 정계, 재계, 금융계 참석 서약식)
- 한중일 아시아M&A협회 창립총회 및 정관 서명  
(2013. 6. 서울코엑스에서 약 300여명(당일 누적행사인원 약1천명)의 정계, 재계 참석 창립총회 개최)

## ▶ 회원조직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홍콩, UAE, 호주 등
- 현재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이 아시아M&A협회 회장 수행



## ▶ 주요업무

- 아시아 국가 중심의 M&A 정보망 구축 (아시아 각국의 M&A정보수집 및 분석)
- 아시아 국가 중심의 크로스보더 M&A수행 (최적의 매칭수행 및 딜진행)
- 아시아 국가 간 상호 해외진출시스템 구축 (현지와의 교류, 정보분석, 제품생산 등 지원)
- 회원조직을 통한 M&A정보, 비즈니스 정보사업 등 (각종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해 제공)



# 아시아M&A협회 소개

## 해외 파트너

### M&A협정 체결했거나 M&A파트너 또는 교류 기관

#### 중국

- 중국공상연합회 M&A공회, 중국광동성투자협회(투자기관 200여개 업체)
- 중국평안증권, 중국중기화자산평가공사(국영기업), 중국홍이자본
- 중국증권업협회, 중국민생은행, 중국초상증권, 중국상하이자산거래소
- 중국 광서자치구 공상은행, Qianhai Highrun M&A펀드

#### 일본

- 일본벤처캐피탈협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M&A센터, 일본레코프
- 일본M&A캐피탈파트너스, 노무라증권, 일본미주오은행
- 일본정책투자은행, SBI그룹, JAIC.

#### 아세안

- 대만사모펀드협회/벤처캐피탈협회
- UAE 내셔널홀딩스(국부펀드)
- 인도SME Chamber (45,000 기업연합회)
- 홍콩벤처캐피탈협회/홍콩사모펀드협회

# 아시아M&A협회 협약식 (한, 중, 일)

아시아 M&A협회 창립 서약식 (2010년 11월 25일 중국 상해 상그릴라 호텔)

‘황명푸’ 중국정협 부주석 겸 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 상해 부시장, 중국은행연합회장, 중국증권감독원 부주석, 중국투자기금협회장 등 500여 중국 정재계 VIP 및 관계자 참석

- 한국대표 : 한국M&A투자협회장(이창헌)
- 중국대표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M&A공회장(왕위)
- 일본대표 : 중-일 우호협의회 부회장, 전 독일대사(고도유종)



# 아시아M&A연맹(현, 아시아M&A협회) 발족 협약식 언론보도

韓, 中, 日 鼎峙 '아시아M&A연맹'(현 아시아M&A협회) 발족

## 한·중·일 3국 동진 아시아M&A연맹 출범

2010-11-26 08:57 <김영화 기자 @kimyo78>

(사)한국M&A투자협회는 최근 중국에서 한·중·일 3국이 동진 '아시아M&A연맹'이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 8회 중국상해연차대회'에서 이창현(사진) 한국M&A투자협회장과 왕위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M&A 공회 회장, 전 중국 대사인 사또요시아스 중일우호협의회 부회장 등 3국 대표는 관련 서약식을 가졌다. 아시아M&A연맹은 앞으로 연구회 개최 및 규정집 발간, 인터넷망 구축 운영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 회장은 "아시아M&A연맹은 국가 및 대륙간 M&A 활성화를 촉진시켜 글로벌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ttykim@heraldcorp.com](mailto:bettykim@heraldcorp.com)



헤럴드코퍼

## '아시아M&A연맹' 발족

| 기사입력 2010-11-25 11:39

(서울=연합뉴스) 이 울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3국의 인수합병(M&A) 관련 단체가 연합조직인 '아시아M&A연맹'을 발족했다. 25일 한국M&A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M&A투자협회와 중국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M&A공회, 일본 중일우호협의회는 이날 중국 상하이 상그릴라 호텔에서 아시아M&A연맹 발족 서약식을 열었다. 아시아M&A연맹은 향후 공동연구회 또는 세미나 개최, 규정집 발간, 교류, 인터넷망 구축 운영 등을 통해 M&A 관련 학술교류와 정보교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국M&A투자협회 관계자는 "M&A중개는 관련 자율규제나 시스템 등이 명확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3국 협회가 협의해 틀을 만들어 나가면, 향후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가간 M&A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mailto:yulsid@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 한국M&A투자협회, 中·日과 아시아M&A연맹 발족

기사입력 2010.11.25 18:59 최종수정 2010.11.25 18:59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나라의 한국M&A투자협회와 중국의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M&A공회, 일본의 중일우호협의회가 모여 인수합병(M&A) 연합조직 '아시아M&A연맹'을 발족했다. 25일 한국M&A투자협회는 중국 상하이 상그릴라 호텔에서 아시아M&A연맹 발족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향후 아시아M&A연맹은 한중일 3개국 협회 주축으로 M&A연구회개최, M&A규정집발간, M&A교류, 3개국의 M&A인터넷망구축운영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M&A비즈니스 발전을 위해 3년 내에 아시아 전역의 조직으로 발전함은 물론 미주, 유럽에 까지 뻗쳐가는 세력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이를 위해 3개국 회장단은 매년 상대국에서 개최하는 M&A연구회 또는 세미나에 교차참석할 예정이며 관련 서적편찬등 학술교류, 정보교류도 활발히 수행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

##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A Strategic Conference  
한·중·일 공동참여 투자매칭 및 아시아M&A협회 창립총회

<주최> 한국M&A투자협회  
(2013. 6. 13. 서울코엑스)  
[언론기사, 방송, 행사사진]

### 조직도



### 주요인사 소개



[고문]강성구(전 MBC 사장) [고문]안병엽(전 정보통신부 장관) [고문]이한성(국회의원)



[고문]민홍철(국회의원)



김형기(전한국벤처투자대표) [조직위원장]김용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전국회의원)



#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

## 조직위원장 및 운영위원 소개



[부위원장] 유성우  
(법무법인재유 대표)



위호인  
(전MBC애드컴 대표)



박영옥  
(스마트인컴 CEO)



[운영위원장]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 전체 총괄)



[중국 운영위원장 왕웨이]  
(중국M&A공회 회장, 중국측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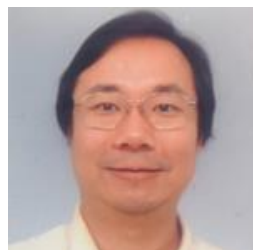
[운영위원] 백효기  
(전코트라 일본무역관장)



이의웅  
(지성회계법인 대표)



순지애 (중국M&A  
공회 집행위원,  
PWC임원)



[운영위원] 나카다로이신  
(일본 부회장)



[분과위원 총무]  
최준봉  
(협회 부회장)



[분과위원 기획]  
허보안  
(협회 본부장)



[재정] 라현주  
(충정회계법인 전문)



[홍보] 전창호  
(GBN강원방송  
총괄국장)



[대외협력] 한계현  
(협회 감사)



[운영위원] 김태호  
(딜로이트 안진 상무이사)



[분과위원\_국제] 정성환  
(협회 상무이사)



#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

## □ 국제투자 및 M&A컨퍼런스개최 “아시아M&A협회 창립총회”개최



아시아M&A협회 창립총회후 한국M&A투자협회 임원  
진 및 중국M&A공회 임원진 기념촬영



한국(이창헌 회장), 중국(왕웨이  
회장), 일본(가쿠가또 전국회의원)  
아시아M&A협회 창립 세레모니

#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

## 보도자료 (MBC뉴스, 헤럴드경제)

### <아시아M&A협회 창립총회 관련 언론보도> 인터넷에서 “아시아M&A협회” 검색, 시청가능



한국M&A투자협회 등 한·중·일 3국 투자 관련 단체가 연합한 아시아 M&A 투자협회가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아시아 M&A 투자협회는 앞으로 금융투자과 관련한 정보망을 구축해 회원사의 해외자금 투자와 인수합병을 도울 계획입니다.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고위층과 중국공상업연합회M&A공회 투자단이 대거 서울행에 오른다.

- 5일 한국M&A투자협회에 따르면 장관급 VIP와 중국공상업연합회 M&A공회의 투자단 등 50여명이 오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 이번 참석자 중에는 중국공상업연합회 최고위층, 전 정부 부부장(차관급) 등 고위층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 정부 차원의 해외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투자단은 행사참석 후 다음 날인 14일에는 서울 G밸리(구로, 가산디지털산업단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투자 단지를 둘러 현장투자교섭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시아M&A협회(준비위원장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장)의 창립총회와 M&A포럼, 투자정책 설명회, 저녁연회 등이 마련된다.
- 특히 이날 행사에는 투자유치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투자자들과 투자유치희망자들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생 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투자자와 투자유치자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투자와 M&A, 합작, 해외진출 등의 큰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유치 희망기업은 협회의 회원사 가입을 통해 무료로 투자부스나 상담데이블을 배정받아 투자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다. (www.mai-expo.com, 02-783-7500) thlee@heraldcorp.com

#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

보도자료 (매경 레이더M, 아시아경제 2013.6.11)

## 중국 투자자들이 대거 방한해 국내 투자 및 인수합병 (M&A)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



- 11일 MAI-EXPO 조직위원회는 오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북경시청 투자촉진국 고위공무원 등 중국 고위층은 물론 중국공상업연합회M&A공회 투자단 등 70여명의 중국인사가 대거 방문해 국내 기업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중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 설립돼 당과 경제인사간 유대강화를 도모하는 기관으로 경영 및 기술발전과 시장확대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수 214만명의 거대조직이다.
- 이번 행사는 아시아M&A협회 창립총회와 M&A포럼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투자유치를 위한 부스 및 엔젤투자룸을 운영해 투자 및 M&A 매칭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디너행사를 통해 해외투자단 및 국내 주요인사간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며 한중일 10개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생기업의 투자자금 유치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국제행사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기업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외에도 중국 투자단은 오는 14일 지방 주요 투자단지를 둘러 현장투자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 행사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www.mai-expo.com](http://www.mai-expo.com) 을 참고하면 된다.

[한우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제투자M&A 전략 컨퍼런스' 13일 코엑스서 개최



기사입력 2013.06.11 11:30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인수합병(M&A)과 국제투자 등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컨퍼런스'가 오는 13일 삼성동 코엑스(E홀)에서 열린다.
- MAI-EXPO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아시아경제신문, 아시아경제팩스TV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에서 왕웨이 전국공상업연합 M&A공회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50여명과 북경시청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일본, 홍콩, 베트남,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다.
-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경제축인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의 투자조직, M&A조직과 기업체의 교류, 투자 등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M&A를 통한 글로벌 기업의 성장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며 "국가·기업간 M&A 활성화를 통해 국제 M&A 표준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아시아 각국의 M&A, 금융, 펀드, 해외진출 정보공유와 교류를 통해 아시아 기업 간의 사업성장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투자유치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투자자들과 투자유치희망자들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투자유치 희망기업은 협회의 회원사 가입을 통해 무료로 투자부스나 상담테이블을 배정받아 투자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다.

#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

## 왕웨이 중국공상업연합회 M&A공회 회장 인터뷰기사 (아시아경제)

### "韓·中, M&A 공조로 세계시장 발돋움"

- [아시아경제 이해영 기자]한국과 중국 기업간 적극적인 기업인수합병(M&A)을 위한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웨이 중국공상업연합회 M&A공회 회장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MAI)' 포럼에 참석해 중국기업의 M&A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왕웨이 회장은 "과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국가 주도형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민간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현지기업 M&A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전 세계 자본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40년 전에는 일본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이 구도가 재편되고 있고 한국과 중국 경제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기업 간 공조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 전체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왕 회장은 이와 함께 "M&A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앞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기자 itsme@ 기사입력 2013.06.14 11:20



### 왕웨이 중국공상업회장 "中 M&A시장, 세계경제의 한 축"

- [아시아경제 이해영 기자]중국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이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왕웨이 중국공상업연합회 M&A공회 회장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MAI)' 포럼에 참석해 중국기업의 M&A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왕웨이 회장은 "과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국가 주도형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민간시장에서 기업 스스로 성장을 이뤄내고 단계에 와 있다"며 그 핵심에 M&A를 통한 기업 성장이 있다고 밝혔다. 왕 회장은 "이제는 어떤 업종이든지 M&A없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그는 중국에서는 M&A를 미래지향적인 기업 운영의 한 방법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M&A를 통해 다른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흡수함으로써 힘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경영 방식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회장은 "30~40년 전에는 일본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이 구도가 재편되고 있고 한국과 중국 경제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기업 간 공조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 전체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왕 회장은 이와 함께 "M&A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앞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MAI-EXPO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아시아경제신문, 아시아경제팩스TV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이창현 한국M&A투자협회 회장과 왕웨이 중국공상업연합 M&A공회 회장을 비롯 일본, 홍콩, 베트남, 호주 등의 M&A 관련 정치·경제 관련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투자정책 설명회와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해영 기자 itsme@ 기사입력 2013.06.13 18:03

#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

##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 인터뷰기사 (아시아경제)

### 이창헌 M&A투자협회장 "인수합병 관련 전문인력 확보 필요"

최종수정 2013.06.13 18:00기사입력 2013.06.13 18:00

[아시아경제 이해영 기자]"M&A(인수합병)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MAI)'에 참석해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이 회장은 M&A(기업 인수합병)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상대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를 꼽았다. 특히 대부분의 M&A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중개회사와 중개자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기업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부동산가치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종합비즈니스로 볼 수 있는 M&A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대했던 시너지와 효율성을 창출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그는 "우선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3개 국가가 인증하는 M&A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 해 인수합병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장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맞는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일부 대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던 M&A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기업인수합병을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MAI-EXPO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아시아경제신문, 아시아경제팩스TV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과 왕웨이 중국공상업연합 M&A공회 회장을 비롯 일본, 홍콩, 베트남, 호주 등의 M&A 관련 정치·경제 관련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투자정책 설명회와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해영 기자 itsme@

#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 컨퍼런스

## 보도자료 (뉴스토마토)

### ‘2013국제투자 및 M&A전략컨퍼런스 개최 이달 13일 코엑스서..중국 고위층 투자단 서울 집결

<뉴스토마토>



-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마이엑스포(MAI-EXPO: International M&A and Investment Expo)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3 국제투자 및 M&A전략컨퍼런스'가 오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E홀)에서 개최된다.
- 조직위원회는 11일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의 고위층과 중국공상업연합회M&A 공회 투자단 70여명이 서울에 모인다고 밝혔다.
- 중국공상업연합회M&A공회의 투자단은 세박그룹, 칸트그룹, 북경 창세기투자기업, 메리타임 캐피탈, 심천 영락투자 유한공사, 중일경제발전협회, 중한기업연합회, 국제투자 유한공사, 회중교육위원장, 북경 전자 기술 유한 공사 등의 대표와 임원들로 구성된다.
- 또 중국공상업연합회 최고위층과 전 정부 부부장(전 차관급) 당서기급의 고위층 등 북경시청 투자촉진국 고위공무원도 포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 주요국의 아시아M&A협회 창립 총회와 M&A포럼, 아시아 주요국의 투자정책, 해외 및 국내 M&A현황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투자유치를 위한 부스와 엔젤투자룸에서는 투자와 M&A매칭도 이뤄진다.
- 이날 저녁연회에서는 해외투자단과 국내 주요인사들이 교류의 시간을 통해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고, 한중일 10개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갖는다. 중국의 투자단들은 행사 다음날인 14일에 지방의 주요 투자단지를 둘러 현장투자교섭 진행한다.
-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생 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국제행사는 투자자와 투자유치자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투자와 M&A, 합작, 해외진출 등에 큰 가능성을 전망하는 교류의 장이 될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행사 참가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ai-expo.com](http://www.mai-expo.com)) 에서 확인할수 있다.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2013-06-11 오후 4:08:59

# 한국M&A투자협회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장면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강의 장면>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수료시험 장면>



사법연수생 “한국M&A투자협회”에서 M&A분야 실무연수



<한국M&A투자협회 사법연수생 실무수습생>

# 중국공상업연합회 M&A공회 연차대회 (2013.11)

한국M&A투자협회장 겸 아시아M&A협회 이창헌 회장의 M&A발전방향 발표



<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겸 아시아M&A협회 회장의 회의 주재 >



< 홍콩콘래드 호텔에서 아시아M&A협회 회의 >



2013. 11. 아시아M&A협회 회원국대표 기념촬영(홍콩 콘래도 호텔)

앞줄 왼쪽부터 황제원 대만M&A협회 및 PE협회장, 가싼아부둘카림 UAE 국부펀드대표, 이창헌 한국 M&A투자 협회 회장, 왕웨이 중국M&A공회회장, 나카다로이신 일본중일M&A협회창립위원, 증광우 홍콩VC 및 PE회장



# 중국 중기화 자산공사 업무협약의



중기화자산공사 방문 기념촬영(중기화자산공사 회장단, 한국M&A거래소 회장단)



왼쪽부터 한국M&A거래소 백명현대표, 이창헌회장, 왕옥룡 수석연구위원, 유성우대표

# 광동성 주주권거래소와 협약서체결 (2014.2)

한국M&A거래소와 광동성 주주권거래소와의 협약서 체결(2014. 2.)



양기관 회장의 협약서체결 장면

# 한국 M&A거래소 출범

## M&A거래소 출범 언론기사 (2014. 2. 11. 연합뉴스)

- 한국M&A투자협회(회장 이창헌)는 11일 민간 주도의 한국M&A거래소(KMX)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M&A거래소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업계의 M&A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 이창헌 회장이 거래소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하고 백명현 협회 부회장과 법무법인 재유의 유성우 대표변호사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았다. 거래소는 금융사와 투자회사, 경제단체,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M&A 관련 기관과의 업무 제휴와 협력을 통한 파트너시스템(M&A Partner System·MAPS)을 구축했다.
- MAPS는 파트너들이 제공한 M&A 정보를 거래소가 취합·분석해 최적의 매도, 매수자를 이어주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협력·제휴를 맺은 M&A 관련기관과 M&A파트너로 등록한 M&A 중개·자문기관에는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kong79@yna.co.kr](mailto:kong79@yna.co.kr) | 기사입력 2014-02-11 10:16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M&A거래소 M.A.P.s (M&A파트너시스템) 운영

WWW.K-MXOR.KR

★ 운영주체



★ 참여, 후원



★ 언론참여, 후원



WWW.KMX.KR




# 한국M&A투자협회, 민간주도 M&A거래소 설립

## 보도자료 (매일경제, 연합뉴스)

### 한국M&A투자협회, `한국M&A거래소` 설립

- [본 기사는 2월 11일(15:4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 중소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M&A거래소가 설립된다. 한국M&A투자협회는 오는 12일 `한국M&A거래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중소기업 M&A중개업무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이 새로 출범하는 거래소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백명현 부회장과 유성우 법무법인 재유 대표변호사가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M&A거래소에는 실무에 능한 거래소 내부인력과 25명의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군이 매매자 물색과 매각자문·중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창헌 회장은 " 이번 한국M&A거래소 설립을 통해 국내M&A시장이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창조경제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M&A 중개에도 나서겠다 " 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M&A투자협회(회장 이창헌)는 민간 주도의 한국M&A거래소(KMX)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는 금융사와 투자회사, 경제단체,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M&A 관련 기관과의 업무 제휴와 협력을 통한 파트너시스템(M&A Partner System.MAPS)을 구축했다. MAPS는 파트너들이 제공한 M&A 정보를 거래소가 취합·분석해 최적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이어주는 시스템이다. 이창헌 회장이 거래소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하고, 백명현 협회 부회장과 법무법인 재유의 유성우 대표변호사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았다. 협회는 "협력·제휴를 맺은 M&A 관련기관과 M&A파트너로 등록한 M&A 중개·자문기관에는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14년 02월 11일 (화) 12:00:14 관세연 기자 sykwak@yna.co.kr

- 서울=연합인포맥스) 관세연 기자 = 한국M&A투자협회·아시아M&A협회가 11일 정부의 M&A를 통한 경제활성화 시책과 업계의 M&A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한국M&A거래소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M&A를 위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 거래소의 경영진으로는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하고 협회의 백명현 부회장과 법무법인 재유의 유성우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사로는 지성회계법인 이의웅 대표회계사, 법무법인 원원의 하광룡 대표변호사, 이촌회계법인의 이한선 대표회계사, 정진회계법인의 전이현 대표회계사 등이 참여했다.
- 금융회사, 투자회사, 경제단체·협회,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M&A 유관기관과 업무제휴, 협력관계를 통해 파트너시스템(MAPS)을 구축해 거래소를 운영하게 된다. MAPS란 거래소가 파트너들이 제공한 M&A 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최적의 매도·매수 매칭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M&A성사율을 높이고 공평하고, 신속하게 M&A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M&A 의뢰기업이 생기면 거래소 내부인력과 25명의 회계사, 변호사 전문인력을 통해 최적의 매도·매수 매칭, 자문·중개업무를 수행한다.
- 협력·제휴를 맺은 M&A관련기관과 M&A파트너로 등록한 M&A중개·자문기관에게는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한국M&A투자협회는 "이번 한국M&A거래소 설립을 통해 국내M&A시장이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창조경제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sykwak@yna.co.kr

# 한국M&A거래소 출범

## 보도자료 (이투데이, 뉴시스)

### 민간주도 M&A거래소 설립

### M&A협회 주도, 로펌·회계법인 등 참여...해외 M&A지원 앞장

<이투데이>

- 민간주도로 M&A거래소가 설립된다. 11일 한국M&A투자협회는 인수합병을 통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업계의 M&A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M&A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금융회사, 투자회사, 경제단체·협회,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M&A 유관기관과 업무제휴, 협력관계를 통해 파트너시스템(MAPS)을 구축해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MAPS(M&A Partner System)란 거래소가 파트너들이 제공한 M&A 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최적의 매도·매수 매칭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M&A성사율을 높이고 공평하고, 신속하게 M&A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M&A 의뢰기업이 생기면 거래소 내부인력과 25명의 회계사, 변호사 전문인력을 통해 최적의 매도·매수 매칭, 자문·중개업무를 수행한다. 또 협력·제휴를 맺은 M&A관련기관과 M&A파트너로 등록한 M&A중개·자문기관에게는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 M&A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M&A 의뢰 건수는 매년 약 3000~5000건으로 추산되며 주로 M&A중개 자문업체에 의뢰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중 성사되는 건수는 약 10%정도인 300~500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M&A 특성상 조건에 맞는 상대방 발굴 및 최적의 매수·매도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M&A자문, 중개 업체가 보유중인 M&A 정보는 10개에서 30개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 거래소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해외 M&A 정보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 M&A위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해외 M&A를 위해 글로벌 M&A 네트워크를 구축중이고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권과 미국, 유럽 등 미주, 유럽권의 M&A정보 네트워크로서 국내 M&A 정보와 매칭해 해외M&A도 수행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초대 거래소 경영진으로는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하고 협회의 백명현 부회장과 법무법인 재유의 유성우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사로는 지성회계법인 이의웅 대표회계사, 법무법인 원원의 하광룡 대표변호사, 이촌회계법인의 이한선 대표회계사, 정진회계법인의 전이현 대표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 김경아 기자 [kakim@](mailto:kakim@) 최종수정 2014-02-11 17:10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M&A투자협회, 민간 M&A거래소 설립

<뉴시스>

-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한국M&A(인수·합병)투자협회는 민간 주도의 '한국M&A거래소'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창헌 한국 M&A투자협회 회장이 거래소 이사회 의장을 맡고, 백명현 한국M&A투자협회 부회장, 법무법인 재유의 유성우 대표변호사 등이 공동 대표이사로 참여한다. M&A거래소의 이사로는 지성 회계법인 이의웅 대표회계사, 법무법인 원원의 하광룡 대표변호사, 이촌회계법인의 이한선 대표회계사, 정진회계법인의 전이현 대표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M&A거래소는 M&A 의뢰기업에 대한 매도·매수 매칭 및 자문·중개업무를 수행한다. 한국M&A투자협회는 "이번 M&A거래소 설립을 통해 국내M&A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창조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viviana49@newsis.com](mailto:viviana49@newsis.com)
- 기사등록 일시 : [2014-02-11 16:41:03]

# 한국M&A거래소 출범

## 보도자료 (파이낸셜 뉴스)

### 민간 주도 한국M&A거래소 설립



### <파이낸셜 뉴스>

- 민간이 주도하는 한국M&A거래소가 출범했다. 한국M&A투자협회는 인수합병(M&A)으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업계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M&A거래소를 설립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M&A거래소는 금융사, 투자사, 경제단체,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M&A 유관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협력관계로 파트너시스템(MAPS)을 구축해 운영된다.
- MAPS는 파트너들이 제공한 M&A 정보를 취합·분석하고 최적의 매도-매수 매칭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글로벌 M&A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M&A도 이뤄지게 구성됐다. 국내 M&A의뢰 건수는 매년 약 3000~5000건으로 추산되며, 주로 M&A중개·자문업체가 진행한다.
- 한국M&A투자협회 측은 "M&A 성사 건수는 약 10% 정도로 매년 300건~500건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M&A자문·중개업체가 보유한 M&A정보는 10~30개 정도이며 이 수준으로 '매도-매수'를 매칭 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한국M&A거래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파트너'를 전국망에 구축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회계·세무·금융·증권·투자·자산·법무·컨설팅·협회 등의 조직이나 개인이 한국M&A거래소에 'M&A파트너'로 등록해 각자 보유한 M&A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시 최고 60%까지 수수료를 지급한다. 거래소 경영진은 한국M&A투자협회·아시아M&A협회 회장인 이창현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한다. 협회의 백명현 부회장(전 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법무법인 재유 유성우 대표변호사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다. 거래소 이사는 지성회계법인 이의웅 대표회계사, 법무법인 윈윈 하광룡 대표변호사, 이촌회계법인 이한선 대표회계사, 정진회계법인 전이현 대표회계사 등이 참여했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의 해외 M&A를 위해 '글로벌M&A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국·일본·인도 등 아시아권과 미국·유럽 등의 M&A정보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2014 M&A정책 세미나 개최

□ “2014 M&A정책세미나” 개최 (2014. 7. 9. 장소 :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

- **주최** : 한국M&A투자협회  **대한민국M&A투자협회**  
KOREA M&A Investment Association
- **주관** : 한국M&A거래소  **한국M&A거래소**  
KOREA M&A EXCHANGE
- **후원** : 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M&A협회, 퍼시픽컨설팅그룹
- **언론후원** : 매일경제신문
- **주요 내용**
  - 정부의 M&A활성화 정책방향 및 주요시책 설명
  - M&A를 통한 산업발전 방안 및 기업성장 전략
  - 국내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제언
  - M&A 촉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

◆ **등록 및 인사** (08:30 ~ 09:00)

◆ **개회사 및 주요인사 소개** (09:00~09:10)



**이창현 회장**  
한국M&A투자협회

**백명현 대표이사**  
한국M&A거래소

개회사 : 한국M&A투자협회 회장  
주요인사 소개 : 한국M&A거래소 대표이사

◆ **축사** (09:10~09:30) :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

- 축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동철 의원
- 축사 : 국회 정무위원회 김중훈 의원
- 축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
- 축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 축사 : 금융감독원 최종구 수석부원장



**김동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중훈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강후 국회의원**  
새누리당

**민홍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종구 수석부원장**  
금융감독원

# 2014 M&A정책 세미나 개최

## 세미나 발표순서 (09:30 ~ 11:30)

### ▶ 제 1부 (9:30 ~ 10:20)

세미나 주제발표 (10') : 한국벤처투자 정유신 사장  
**“세계M&A시장 현황과 국내M&A시장 활성화 방안”**  
 ※ 한국M&A투자협회(한국M&A거래소)의 기능과 역할 (5')



정유신 사장  
한국벤처투자

### 패널토론

**“한국의 M&A시장 동향 및 활성화 방안”**

좌 장 : 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  
 토론자 : 산업은행 김석균 인수합병부장  
 토론자 : 삼일회계법인 유상수 전무  
 토론자 : 법무법인 광장 이형근 변호사  
 토론자 : GE인터내셔널 김옥진 전무



윤창현 원장(좌장)  
금융연구원



김석균  
인수합병부장  
산업은행



유상수 전무  
삼일회계법인



이형근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김옥진 전무/CFO  
GE인터내셔널

### ▶ 제 2부 (10:30 ~ 11:30)

세미나 주제발표 (10') : 현대증권 소병운 전무/IB부문장  
**“M&A를 통한 기업성장 및 해외진출 전략”**  
 ※ 한국M&A거래소의 파트너십시스템(MAPS) 이해 (5')



소병운 전무  
현대증권

### 패널토론

**“M&A 성공요소 및 모범사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좌 장 : 현대증권 소병운 전무/IB부문장  
 토론자 : 한국벤처투자 정유신 사장  
 토론자 : 성장사다리펀드 서종군 사무국장  
 토론자 : 스틱인베스트먼트 고성규 상무  
 토론자 : 법무법인 화우 박영우 변호사



소병운 전무  
현대증권



정유신 사장  
한국벤처투자



서종군 사무국장  
성장사다리펀드



고성규 상무  
스티킨베스트먼트



박영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 2014 M&A정책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매일경제TV, SBS)

매일경제TV | Mmoney

【 매일경제 TV 앵커멘트 】 기사입력 2014-07-09 16:21

올해 들어 전세계 M&A 규모가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축돼있는 국내 M&A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매물을 거래하는 **한국M&A거래소가 설립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나연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하생략("한국M&A거래소" 인터넷검색 하여 시청가능)



"한국M&A거래소" 보도,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1480257](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1480257) 클릭

## "2014 M&A정책세미나" 개최관련 언론기사

**위축된 M&A시장, 활성화 위한 세미나 열린다**

하대석 기자 최종편집:2014.07.09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 한국M&A 투자협회(회장 이창헌)와 한국M&A 거래소(대표 이사 백명현)는 업계의 M&A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9일) M&A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 및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M&A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M&A 시장이 위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3월 6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M&A협회와 올 2월 한국M&A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해외 M&A시장에 비해 다소 침체된 국내 M&A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업계의 전략 및 제언 등 M&A 촉진을 위한 활발한 의견교환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 M&A투자협회 이창헌 회장은 "우리 협회가 중국M&A공회와 '한·중 산업발전 M&A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세미나에 이어 '한중M&A펀드협약식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국M&A공회는 중국의 대표적인 M&A조직으로서 이번 협약식에 왕핑(王平) 집행주석과 홍콩지회의 패트릭체(謝炯全) 명예회장이 참석한다고 이 회장은 전했습니다. 왕핑 집행주석은 한화 2조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회사인 중국의 홍이자본그룹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한중산업발전기금(M&A펀드)은 미화 10억 달러 규모로 설립하되 우선 1차로 한·중이 각각 1억 달러씩 2억 달러를 출자하여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와 협약식이 열리는 장소는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이며 오늘(9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됩니다.

# 2014 M&A정책 세미나 개최

## 보도자료 (연합뉴스)

###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M&A정책세미나' 개최

<연합뉴스>

#### 한·중 M&A펀드 협약식 및 기자회견,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 (사)한국M&A투자협회(회장 이창헌)와 (주)한국M&A거래소(대표이사 백명현)는 최근 정부의 M&A를 통한 경제활성화 시책과 업계의 M&A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7월 9일 M&A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 및 정부 관계자와 업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M&A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성장전략을 구사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M&A시장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최근 위축되어 있는 편이다. 지난 3월 6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상태이나 아직 이렇다 할만한 조치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이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하나인 한국M&A협회와 올 2월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민간주도로 출범한 한국M&A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동 세미나에는 국회,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해외 M&A시장에 비하여 다소 침체된 국내 M&A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업계의 전략 및 제언 등 M&A 촉진을 위한 활발한 의견교환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한국M&A거래소'와 '한국M&A투자협회'는 '아시아M&A협회'(회장국 한국)의 회원조직인 '중국M&A공회'와 "한·중 산업발전 M&A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M&A정책세미나에 이어서 "한·중M&A펀드협약식 및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중국M&A공회는 중국 전역의 공사업계를 커버하는 M&A조직으로서 이번 협약식에 왕핑(王平) 집행주석 및 홍콩지회의 패트릭체(謝炯奎) 명예회장이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갖는다. 왕핑 집행주석은 한화 2조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펀드회사인 중국의 홍이자본그룹의 회장(主席)이기도 하다.
- 한중산업발전기금(M&A펀드)는 미화 10억 달러 규모로 설립하되 우선 1차로 한·중이 각각 1억 달러씩 2억 달러를 출자하여 설립하기로 하였다. 본사는 서울에, 지사는 홍콩에 둘 예정이다. 동 협약식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M&A 조직은 양국의 M&A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육성·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양국의 M&A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기업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4.07.07 18:01

# 2014 M&A정책 세미나 개최

## 보도자료 (서울파이낸스)

### M&A시장 살리려면 인식개선 필요”

### “CEO 소유경영 의식 버려야”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M&A(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M&A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9일 한국M&A투자협회와 한국M&A거래소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제안이 나왔다.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사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세계 M&A시장은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타면서 다시 활황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각국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M&A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 및 성장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처럼 세계 각국이 전략적인 M&A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글로벌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업을 사는 편이 신사업 개척이나 신기술 개발보다 리스크가 적다는 인식 때문이다. 반면 국내 M&A 시장의 경우에는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던 국내 M&A시장은 특히 지난해 들어서 크게 위축되고 있다.
- 이는 M&A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정 사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할 때마가 헐값에 사거나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며 "특히 외국계 기업에게 인수될 때 국내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여유있는 기업들이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서 M&A를 시도하기 보다는 한계기업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M&A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며 "때문에 M&A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졌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외에도 M&A에 관한 시장정보 및 노하우 부족, 금융규제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이 경우에는 기업문화 차이때문에 인수합병 후 통합 과정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규제, 해외 M&A할 때 국내 IB나 PE 역할 등도 제한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 토론에서도 시장 관계자들은 M&A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석균 산업은행 인수합병부장은 "국내 기업들의 강한 소유경영 의식때문에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서의 기업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적기를 놓쳐 적절한 유동성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 외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해외 M&A 활성화 추진, M&A 매칭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PEF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내 투자은행의 역량 강화 등이 나왔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는 국회,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4년 07월 09일 (수) 17:59:03 김소윤 기자

# 한중산업발전M&A펀드 협약서체결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 □한중산업발전M&A펀드 협약서체결

韓·中 1조 규모 M&A펀드 만든다, 첫 민간협력펀드 주목



백명현 한국M&A거래소 대표, 왕핑 중국M&A공회 집행주석, 이창현 한국M&A투자협회 회장, 패트릭 체 중국M&A공회 홍콩지회 명예회장(왼쪽부터).

-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왕핑 중국M&A공회 집행주석은 "선박 · 정보기술(IT) · 게임 · 창조문화산업 등에 투자할 것"이라며 "두 협회가 공동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협회는 앞으로 M&A를 넘어 기업공개(IPO) 투자, 투자자 교육 등 사업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매일경제가 후원하고 한국M&A투자협회가 주최한 `한국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M&A 활성화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 김석균 KDB산업은행 M&A 부장은 "외환위기 당시 기업을 헐값에 매각했던 기억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야 한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적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구조조정 속도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 이용건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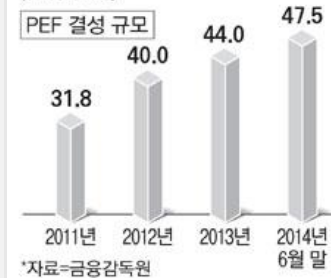
- 한국과 중국의 인수·합병(M&A)협회가 손잡고 1조원 규모 한·중 M&A펀드를 조성한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주도로 처음 구성되는 펀드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9일 한국M&A투자협회와 중국M&A공회는 한국과 중국 산업 발전을 위한 M&A 펀드 10억달러(약 1조원)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펀드 결성 협약식을 했다. 두 협회는 올해 말까지 한·중 1억달러씩 2억달러(약 2000억원) 규모로 첫 펀드를 조성한 뒤 규모를 차차 늘려갈 계획이다

## 영실업·네파... `알짜` 줄줄이 PEF품으로

기사입력 2014.07.08 17:12:44

가업승계 포기 中 企매물 한해 3000건 자동차부품·의류업종에  
매물 집중

나날이 커지는 M&A 주역 사모펀드  
(단위=조원)



사모펀드(PEF)의  
중소·중견기업 M&A 장단점

- 장점
  - 제조업 기반 유지 통한 고용 창출
  - 임직원 풀어안기 전략 통해 실적 향상
  - 기존 주주 추가 이익 기대
- 단점
  - 기업 회계 정보의 낮은 투명성
  - 기업가치 산정 곤란
  - 창업주 세금 부담에 따른 매각가상향

- 사모투자펀드(PEF) 업계는 최근 가업승계 기업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인수·합병(M&A)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내 PEF 업계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기업 인수 경쟁이 치열해져 제대로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진 데다 잘만 고르면 알짜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도 높아서다. 8일 한 외국계 PEF 업계 관계자는 "공개 매물로 나온 대형 기업 인수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가격 메리트가 없는 `레드오션`이 돼 버렸다"며 "은밀히 M&A가 진행되는 중견·중소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업승계 이슈로 인해 매물로 나온 중소기업 인수가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중소·중견기업 M&A가 각광을 받으면서 민간 주도로 매물을 거래하는 `한국M&A거래소`가 설립돼 향후 중소·중견 기업 M&A 거래 활성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PEF의 가업승계 기업 인수가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를 통한 고용 창출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중소·중견기업 M&A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명수 KDB산업은행 법무실 팀장은 "중소기업들의 회계 정보 취약성·가치 불확실성 등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자 처지에서 해당 기업의 정보 부족, 가격 산정의 어려움 등이 문제라는 얘기도.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M&A거래소가 적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M&A투자협회 회장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M&A 특성상 거래 상대방을 찾지 못해 사장되는 거래가 90%가 넘는다"며 "다양한 시장 참가자가 관련 정보를 공유해 M&A를 엮어주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M&A를 중개하는 투자은행(IB),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자문사들은 관련 정보를 `대외비`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M&A를 용이하게 하는 장으로 M&A거래소가 적격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M&A거래소를 설립해 회계법인과 금융사를 중심으로 회원을 모집 중이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家業승계 포기 "팔아만 달라" 中企매물 年3000건 쏟아진다

70년대 창업세대 퇴진...2세 "제조업하기 싫다" 상반기 M&A 2조4천억

기사입력2014.07.08 17:32:01 | 최종수정2014.07.09 16:03:09

중소·중견기업 M&A(단위=억원)



- 중견 가구업체 A사 창업주 L씨(61)는 최근 회사를 팔려고 비밀리에 인수자를 찾아 나섰다. 지난해 뜻하지 않게 품질 이슈가 불거진 데다 경기까지 얼어붙으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가 수월하지 않자 L씨는 국내 한 사모투자 펀드(PEF)를 찾아 인수를 타진했다.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기 위축에 상속세 부담 등으로 가업 승계가 임박한 중소·중견기업이 연간 3000건 이상 매물로 나오는 것으로 추산된다. 8일 매일경제 레이더M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매각 가격이 50억~1000억원인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경영권 매각은 67건, 2조470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조2744억원(4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전체(2조7704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 **이창현 한국M&A투자협회장은 "10억~1000억원대 중소·중견기업 매물이 연간 3000~5000건가량 쏟아지지만 실제 M&A 성사율은 3~4%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제조기업을 세운 창업주들의 은퇴 시기를 맞아 사업체 매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창업 1세대는 상속세 부담과 함께 2세대들이 '기름밥은 먹기 싫다'는 풍조로 인해 자동차부품·의류 등 제조업 관련 가업 승계를 꺼리는 현상까지 맞물린 탓에 기업 매각을 결심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업 승계를 돕는 제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주식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유일하다. 2007년 1억원에 불과하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지난해 500억원까지 늘었다. 상속하는 주식의 가치가 50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 이후 근로자 수를 유지하고 업종 전환을 못하는 등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사전 증여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점도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가업 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공제 한도가 30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강두순 기자 / 한우람 기자 / 정순우 기자]

# 한국경제매거진 인터뷰기사

[폭발하는 M&A 한국은 뒷집만] 공격적 M&A로 '성장 사다리'를 잡아라



## 한국경제매거진

기사입력 2014-07-30 09:15

### 인터뷰 | 이창현 한국M&A투자협회 회장

**"1+1=3 되는 성장형 M&A가 바람직"** 2009년부터 사단법인인 한국M&A투자협회를 이끄는 이창현 회장은 올해 2월 중소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한국M&A거래소를 설립했다. 한국M&A거래소는 국내 M&A 성사 비율이 한 해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해 적절한 매수자·매도자를 찾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M&A 관련 내부 전문가와 25명의 회계사·변호사 등을 확보해 자문·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쉽게 말해 기업들의 커플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는 셈이다.

-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들이 M&A를 대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한국 경영자들은 기업의 소유 의식이 남달라 기업을 절대 팔지 않으려고 하고, 하다하다 안 될 때 내놓는다. 하지만 미국의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은 마인드가 전혀 다르다. 기업 가치가 높을 때 제값 이상을 받고 파는 경우도 많고 아예 M&A를 위해 창업하는 똑똑한 벤처 창업가들도 상당수다. 한국 기업들만 해외 기업에 비해 M&A에 소극적인데 만약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그간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으로 버텨 온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견잡을 수 없이 약화될 것이다."
- **최근 국내 M&A 트렌드는 뭐냐.** "1, 2세대 창업주들을 중심으로 가업 승계를 위한 M&A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자신의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거나 마땅한 후계자가 없을 때 유능한 제삼자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싶어 이를 추진하는 사례들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 정부는 토종 사모 투자 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혜택 등을 통해 M&A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효과적인가. "방향은 맞지만 우선순위 설정엔 아쉬움이 남는다. 중소기업을 농촌 총각으로 비유하자면 결혼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신붓감이 없고 신붓감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만약 농촌 총각이 결혼하면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고 가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매칭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고 이를 위해 민간 기관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 **바람직한 M&A 방법은 뭐냐.** "M&A는 크게 생존형과 성장형 M&A가 있다. 생존형 M&A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M&A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 취하는 방법이다. 궁극적으로 성장형 M&A를 추구해야 한다. 성장형 M&A를 하면 두 기업 모두에 시너지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높은 화소 기술을 보유한 중견 카메라 기업 A사와 손떨림 방지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B사가 M&A를 하면 '1+1=3' 이상의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많은 히든 챔피언, 우수한 기술력의 벤처기업과 결합해야만 한다." 김민주 기자

[vitamin@hankyung.com](mailto:vitamin@hankyung.com)

# 2014. 1. 일본M&A센터, 일본벤처캐피탈협회, 일본상공회의소, 레코프, M&A캐피탈 방문

## 2014. 1. 동경에서 일본M&A센터 방문(한국M&A거래소와 유사조직)

※ 일본M&A센터는 회계사, 금융조직을 통한 중소기업M&A중개전문회사로 시가총액 1조5천억 돌파

### < 한국M&A거래소와 일본M&A센터의 업무협약 >

왼쪽부터 와대바시 일본M&A센터 회장,  
일본M&A센터 해외이사, 통역, 한국M&A거래소 이창헌 회장



### < 식사 중 대화 > 한국M&A거래소 회장, 일본M&A센터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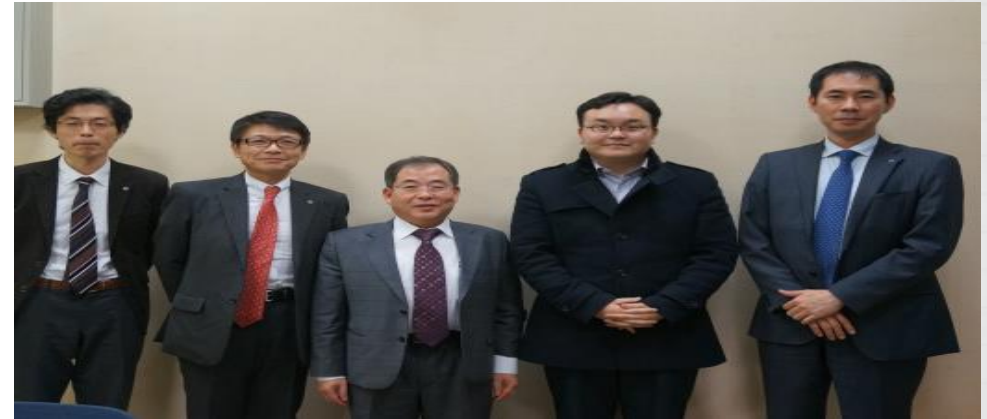


# 2014. 1. 일본M&A센터, 일본벤처캐피탈협회, 일본상공회의소, 레코프, M&A캐피탈 방문

<아다치 일본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창헌 한국M&A거래소회장>



<일본상공회의소 간부 및 실무진, 한국M&A거래소 회장 기념촬영>  
레코프(일본M&A중개기관 2위)방문 업무협의



왼쪽부터 레코프 라구치 상무, 온지 사장, 푸쿠시마 전무,  
M&A거래소 이창헌회장, 통역



# 미래시장포럼(FMF) 창립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조찬모임 (롯데호텔 서울)



27일 열린 미래시장포럼에 이강후 국회의원과 이창헌 M&A투자협회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백명현 M&A거래소 대표,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앞줄 왼쪽부터), 강성구 전 MBC 사장(뒷줄 왼쪽 둘째) 등이 참석했다.



### 한국M&A투자협회, 27일 '미래시장포럼' 창립행사 개최

## 매일경제

- 한국 인수·합병(M&A) 시장 핵심 관계자들 간 협력과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미래시장포럼(FMF)이 27일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M&A투자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M&A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포럼을 겸한 발대식을 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FMF는 M&A투자협회와 한국M&A거래소가 주도해 M&A업계 시장참여자 간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만든 포럼이다.
-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장은 "포럼 참가자들이 보유한 M&A 관련 정보를 결집해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찾아주며 기업들에 대해 M&A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이의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법무·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 경제와 한민족의 DNA'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이 205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M&A투자협회는 이달 27일 오전 7시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스위트에서 미래시장포럼 창립기념 조찬모임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 참석대상은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투자기관, 일반업체 기관장(CEO) 및 임원 등이다.
-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경제활성화 정책방향 및 주요시책 △경영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 △미래시장의 변화 및 국내기업 환경의 변화 △기업 및 경제관련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교양 및 시사상식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 또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초청강연자로 나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한민족의 DNA'를 주제로 강연한다.
- 협회 관계자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임원 역량강화를 목표로 조찬모임을 운영키로 했다"며 "참가 회원 간 다양한 교류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한국M&A투자협회는 국내외 M&A 전문기업 및 유관기관을 회원사로 하고 국제적 조직을 운영하는 전문협회로 M&A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 이혜림 기자 ([shortrim@ajunews.com](mailto:shortrim@ajunews.com)) | 등록 : 2014-10-22 17:55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즈니스플랫폼포럼(BPF) 창립

매월 둘째주 화요일 석찬모임 (프레지던트호텔 서울)

'비즈니스 네트워크 허브'를 표방하는  
비즈니스플랫폼포럼(BPF)이  
첫발을 내딛었다.



- 한국M&A투자협회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BPF 창립 행사와 함께 첫 포럼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 BPF 명예이사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복지를 주제로 강연했다.
- 오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3%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확보에 대해 설명했다.
- 이번 포럼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 등 정재계 인사를 비롯 160여명이 참가했다.
- 내달 10일 열릴 예정인 2차 포럼에서는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 한국M&A투자협회가 주최하고 한국M&A거래소가 주관하는 BPF는 월례 석찬 포럼으로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매경닷컴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투자협회, 상하이연합산권거래소와 업무협약

## 2015. 3.17 상하이연합산권거래소와 업무제휴 양해각서(MOU) 체결



- 한국M&A투자협회(회장 이창헌)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연합산권거래소와 업무 제휴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상하이연합산권거래소는 기업지분, 특허, 자산 등을 사고 파는 종합 자산 거래소로 중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거래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M&A투자협회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중국과의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특허와 기술, 부동산 등에서도 투자유치 및 거래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M&A투자협회는 산하 조직인 한국M&A거래소를 통해 업무를 제휴한다.
- [매경닷컴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광서성 당서기 서울설명회 주관

보도자료(매일경제) : 중국 광서자치구 투자설명회 개최 (2015. 4. 6.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왼쪽 맨왼쪽 3번째부터 인민은행 광서은행장, 광서자치구 금융실 주임,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 김원길 전)보건복지부장관, 민홍철 국회의원, 백명현 한국M&A거래소 대표



왼쪽부터 이해훈 전)새누리당 최고위원, 민홍철 국회의원,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 회장



- 광서자치구 정부와 한국M&A투자협회(회장 이창헌)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 개막식에서 평칭화 중국 광서자치구 당서기는 “광서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아세안국가와 육로가 맞닿아있고 해상교류도 할 수 있다”며 “한국과 광서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기업이 광서에 투자해 함께 아세안시장을 개척하게 됐으면 좋겠다”며 “광서지역은 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으로 주요 관문이 될 것이며 한국은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유럽 등을 이어주는 주요 지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행사는 광서성의 투자환경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1부 행사와 중국측 참석자와 한국측 참석자간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이 이뤄지는 2부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병익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장은 “광서자치구측에서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대규모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국내에서 투자설명회를 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며 “금융부문에서 중국으로의 투자가 아직 한계가 많지만 방향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 이날 중국측에서는 평칭화 당서기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 10여명과 공상은행 본사 임원과 광서은행장,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등 35명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강후·민홍철 국회의원, 이해훈 전 의원,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손태승 우리은행 부행장, 윤준구 IBK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해 총 400여명이 설명회장을 찾았다.

# 중국 광서성 당서기 서울설명회 주관

## 행사참석 전 VIP 간담회 사진



※ 왼쪽 : 이인제 최고위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이창헌 한국M&A거래소 회장, 이영준 주 중국한국인박사회 회장, 정수경 우리은행 상임감사, 손태승 우리은행 부행장, 박범식 산업은행 펀드실 실장

※ 오른쪽 : 팽칭화 당서기 (광서자치구), 광서자치구 인민정부 고위직 공무원(외사부 주임, 금융실 주임, 상무청장), 광서 공상은행장, 광서인민은행장)

# 한국M&A거래소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업무협약서 체결(2015. 6. 4.)

## 협약서 체결 후 기념사진



※ <왼쪽 부터>

M&A거래소 조은철이사, 방기장이사, 최영수상무, 경영혁신협회 박철구 회장, M&A거래소 이창현 회장, 혁신협회 안병구상근부회장, 최명동전무, 김춘기상무